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서도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참여하는 공동체입니다.

서울시 용산구 청파동 3가 B5 / 전화 713-5254 (사무실) 717-2605 (담임목사실)
HOME PAGE: www.chungpa.or.kr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성령강림절후 제13주 】

전 주	반주자	
은총을 기리는 노래	주의 전에 나올 때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36.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좋으신 주님, 9월의 첫 주일 아침 청과 신앙 공동체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흰 이슬처럼 내리시는 주님의 은총을 사모합니다. 무서운 속도로 변하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 영혼은 갈피를 잡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는 지혜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고단한 일상에 지쳐 팍팍해진 우리의 심령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 고백하면서도, 다른 길을 걸을지라도 하는 우리들을 붙잡히 여겨주십시오.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주님을 향해 힘써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실천이 오롯이 일치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살아 숨쉬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롬3:23-24 인도자

♠ 교 독 문 14. 시편46편 다함께

♠ 영 광 송 1. 만복의 근원 다함께

대표기도 I. 장성호 선생 II. 장영숙 전도사

응 답 송 찬양대

찬 송 167. 주 예수의 강림이 다함께

성경봉독 I. 요5:1-9 인도자

II. 마21:18-22 김정길 권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고백 최인환 전도사

II. 기도(祈禱)는 기도(企圖)다 김기석 목 사

거듭기도 다함께

헌신의 찬송	523. 나 형제를 늘 위해	다함께
헌금봉헌		다함께
♠ 봉 헌 송	71. 내게 있는 모든 것을(1)	다함께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공동체 소식		인도자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결단의 찬송	평화의 기도(성 프란치스코)	다함께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우리의 인도자이신 주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주저하지 말고 진실의 길, 거룩의 길을 따라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이제 우리 영혼을 미혹하는 거짓 신들의 달콤한 속삭임에 귀를 막고 살겠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가시밭길이라 해도 진실의 길을 따라 걸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들을 보면 그들 곁에 다가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시오. 아멘.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의 내일은 밝습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성가대 주최 예배	9월 기도의 밤
말씀 : 김재흥 목사	집례 : 김재흥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김기석 목사	오선영 선생 조병무 장로	인도자 박효선 권사

9월	영접위원	한완식	하현 철	조문규	강순배	진정숙	정진경
	헌금위원	조병무	김준호	안길상	곽혜자	이순정	박효선

다친 새 한 마리

라르슈(‘방주’라는 뜻으로 프랑스에 있는 정신 지체 장애인들의 공동체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육신의 아버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대리 부모 역할만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친부모에게 버림받은 일로 인해 고통 당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고, 마음속에 뿌리 깊은 분노와 우울을 품고 있습니다.

그들은 빛이 아닙니다. 정반대로 그들에게서 너무나 자주 볼 수 있는 것은 어둠의 세계입니다. 빛은 깊이 묻혀 있고 숨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연약하며 의존적이고 이제 막 다른 사람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요셉에게 맡겨진 그 아기를 닮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에 대해, 그리고 그들의 행복과 성숙과 성장에 대해 책임이 있습니다. 라르슈가 우리에게 맡겨졌듯이, 그들 또한 우리에게 맡겨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약속된 충만함에 이르지 못할 것입니다. 행복하지도, 성숙하지도, 자라지도 못할 것이며, 자유와 마음의 평화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과 그들이 교회와 인류의 중심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사명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으로 그들을 자유롭게 하며, 우리의 신뢰로 그들의 마음에 신뢰감을 불어넣어 줄 책임이 있습니다. 그들을 견고히 세워 주고 더 멀리 전진해 가도록 촉구할 책임과, 그들의 소망과 영육을 살찌우며 그들을 교육하고 그들의 성장을 도울 책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맡겨진 크고도 놀라운 의무입니다.

라르슈에서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도록 부름 받았으며, 이기주의와 경쟁심과 자신을 증명하려는 욕망에 대해 죽음으로써 서로의 차이는 위협이 아니라 보물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부름 받았습다. 다양성 속에서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우리의 일치와 조화, 서로에 대한 필요와 각자의 은사에 대한 존중은 왕성한 생산력의 원천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 그릴 것입니다. (.....)

공동체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마음과 자연에 있는, 여러 가지 차원과 리듬에 맞추어 사는 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공동체는, 인간이 우애와 평

화가 넘치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함께 살고 사랑하며 축하하고 노동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징표가 되기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모른 척하거나 죽이는 일이 빈번한 이 물질주의 세상에서, 공동체 사람들은 사랑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징표임이 틀림없습니다.

공동체는 마치 심포니를 연주하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악기들은 하나씩 연주될 때도 제각기 아름다운 음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함께 연주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순간에 다른 악기가 먼저 연주되도록 양보할 때 더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고 이루는 사람들은 사랑하고 용서하며 다른 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일 뿐 아니라, 세심하게 다른 이들을 돌보고 양육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공동체 사람들은 각자 자신이 받은 은혜로써, 사랑과 애정을 표현하는 각자의 방식에 따라 자신의 은사를 발휘합니다.

공동체는 구성원 각자가 서로의 은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깨닫고 각각 더 투명하고 더 분명하며 더 통찰력 있고 더 성실하게 자신의 재능을 발휘하고자 노력할 때, 진정한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이때 각 사람은 각자 자신의 자리에서 공동체를 세우는 것입니다.

나는 다친 새 한 마리를 손으로 감싸고 있는 그림을 매우 좋아합니다. 이 손의 주인공은 혹시 새가 떨어질까 봐 손을 많이 벌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새가 짓눌릴까 봐 꼭 쥐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손은 보금자리처럼 새를 지탱하고 붙들어주며, 따뜻하게 해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다친 새는 때가 되면 다시 기운을 차리고 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란 이렇게 새를 감싸고 있는 손과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이를 소유하거나 가두지 않고,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그 아이가 날 수 있도록 도와줄 뿐입니다.

우리의 삶과 육체와 손은 이처럼 다른 이들을 받아들이고 붙잡아 주며 그들을 감싸도록 부름 받았습니니다. 그러니 소유하거나 강요하지 마세요. 판단하거나 책망하지 마세요. 다만 연약한 자를 붙들어 주세요. 그의 고통과 분노와 절망을 붙들어 주세요. 자신감을 잃은 마음과 꿈과 잘못된 공상뿐 아니라 그의 빛과 희망과 앞으로 더 자라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붙들어 주세요. 그가 완전히 회복되어 새 보금자리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날까지.

— 장 바니에, <<희망의 사람들 라르슈>>

당신은 미래의 물을 빌려쓰고 있습니다

물의 나이는 46억 년입니다. 지구가 처음 탄생할 때부터 지금까지 순환을 계속하면서 생명을 품고 낳아 기르면서 생명의 젖을 물렸습니다. 물은 말 그대로 생명의 뿌리입니다.

물은 열고 끓고 증발하는 변화무쌍한 물질입니다. 구름과 노을, 무지개, 눈과 서리, 빙하, 폭포, 바다, 이 모든 것은 물이 스스로를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물이 없는 지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모든 생명의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고는 40일간 살 수 있지만 물 없이는 단 5일도 살 수 없다고 합니다. 모든 생명체는 몸에 물을 품고 있고, 모든 존재는 물 순환의 일부입니다. 순환의 고리가 하나라도 깨어지면 생명을 유지하는데 위협을 받습니다. 지구에 물이 많지만 대부분(97.5%)은 바다에 있고, 담수가 2.5%인데, 그 중에서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은 0.01% 정도입니다. 모든 물은 적절하게 제 자리에 있어서 지구에 모든 생명을 조화롭게 키우며 돌고 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물을 품고 있는 숲이 파괴되고, 강의 자연스런 흐름이 사람의 개발로 막히거나 훼손되고, 물이 오염되어 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을 잃으면, 수억 년 동안 자연스레 순환해온 물이 불안정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홍수나 물이 가져오는 재난은 순환 고리가 끊어지는 현상입니다.

지구의 물은 지리적으로 매우 불균등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물 분쟁은 앞으로 심각한 상황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전체 지구의 눈으로 물을 보고 물을 사용하고 물을 관리하고 유지해야 합니다. 사람은 짧은 시간 동안 약간의 물을 미래로부터 빌려쓰고 있는 것입니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원로목사 : 박정오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홍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최인환	소속목사 : 한인철 양재성	
원로전도사 : 박옥식	원로장로 : 김춘려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장 로 : 김철수 조병무 한완식 구성실 윤석철 방문성 한상익		
찬양대장 : 한상익	지휘 : 윤주원	반주 : 최운선 한선희 김수진 최미선
관 리 인 : 노용래	운전기사 : 오진훈	도서관 관장 : 이순정

◇ 헌 금 영 수 기 ◇

십일조헌금:

김기석 김희우 박정오 장민숙 김인걸 문영혜 정현주 안종일 김종수
 이순정 방문성 박혜경 조관행 홍선희 오진훈 노순옥 박규석 박경선
 임창선 임 영 정경례 김희진 박홍재 김지윤 김지호 김훈동 김금순
 노용래 방 민 정복순 최미선 조병무 송양진

월정헌금:

하현철 최성애 장재영 김재영 윤성종 김윤정 이동천 왕수명 이소순
 이정은 서정순 전영규 김경수 이경남 배부례 홍복선 조항신 김승현
 김수진 최철수 곽권희 노미향 박범희 박미영

감사헌금:

김기석 김희우 김재흥 장영숙 최희영 김주현 김 극 이인웅 백묘현
 송웅길 이인웅 이한림 김명희 정현창 고재중 오현정 문금석 홍지희
 홍순구 안홍숙 오진훈 노순옥 무명3

생일감사헌금: 문홍일 한선희

100주년 기념사업 헌금: 무명1 (누계: 2,060,000원)

◇ 속 회 보 고 ◇

속 명	인 도 자	속 장	모 인 곳	다음 장소
예루살렘	유 영 남	차 혜 심	연 합 속 회	엄 순 님
베들레헴	노 순 옥	정 경 례		서 정 순
안 디 옥	임 정 자	이 춘 희		이 춘 희
가 나 안	문 영 혜	박 경 선		박 경 선
갈 린 리	조 병 주	박 애 순		조 병 주
베 다 니	박 홍 재	곽 권 희		김 필 순
시 온	박 효 선	허 정 윤		박 효 선
엠 마 오	최 속 화	권 미 정		김 재 광
에 베 소	이 순 정	장 혜 숙		이 순 정
빌 립 보	구 성 실	박 현 우		안 길 상
가 버 나 움	구 명 자	안 홍 숙		구 명 자
나 사 렛	백 혜 숙	정 옥 영		최 영 선
갈 라 디 아	송 양 진	유 경 순		송 양 진
고 린 도	이 영 란	이 증 자		김 성 자
다 메 섹	박 혜 경	최 영 혜	조 항 미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오후집회** : 오늘 오후집회는 찬양대 주최예배입니다. 김재홍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십니다.
2. **환경부** : 예배 후 1시에 중고등부실에서 모입니다.
3. **부장회의** : 교육부장회의가 1시 10분에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4. **선교회장 간담회** : 오후집회 후에 도서관에서 모입니다. 회장들은 꼭 참석하십시오.(각 선교회마다 한 분씩은 참석해야 합니다)
5. **기도의 밤** : 오는 수요일(6일) 오후 7시 30분에 9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느슨해진 신앙의 버팀줄을 당기는 시간으로 삼으십시오.
6. **봉사** : 종묘 급식 봉사가 6일(수) 오전 11시 15분에 있습니다. 봉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7. **여선교회** : 다음 주일(10일) 예배 후 교육관에서 여선교회 연합월례회로 모입니다.
8. **목요성경학당** : 9월 14일부터(낮 10시 30분, 저녁 7시 30분) 존 웨슬리 목사의 표준 설교를 읽어나갑니다. 동참하실 분들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9. **평화 학교** : 9월 13일(수)부터 <성서에서 배우는 평화>라는 주제로 공부를 시작합니다. 복음의 핵심적인 진리를 배우는 일에 동참하십시오.
10. **신앙실천** : 하루에 단 한 사람만이라도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염원을 간직한 채 사십시오. 마음이 있는 곳에 길도 있게 마련입니다.

* 식당 봉사 : 안디옥 속

* 헌화 : 최철수 광권희 집사 (부모님 기일)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